

# 그림에 관해 알아야 할 것들

Things to Know about Paintings

## 1장. 여행이 시작된다

p.10~11



미술품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소묘나 채색한 그림일까? 물론 그렇지 않고, 거기에는 조각품, 사진, 직물, 도자기를 포함하여 많은 다른 형태의 미술품이

있다.

현대 미술품이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 수년에 걸쳐, 거기에는 벽돌 덩어리, 거대한 미끄럼틀들, 그리고 수백만 개의 도자기 해바라기 씨로 가득 찬 홀이 포함되어 있다! TV 시리즈 <심슨 가족>의 어느 회차에서는 호머가 고철로 숯불구이용 그릴을 만들려다가 실패하고 만다. 그런데 그것이 현대 미술품으로 오인되어 대중들이 보도록 전시된다.



p.12~13

어떤 현대 미술품은 설치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지 짧은 시간 동안만 벌어지는 공연의 한 유



형이다. 2016년 7월 9일에 스펜서 터닉이란 예술가가 영국의 해안 도시 혈에서 설치 미술 작품 하나를 만

들었다. <혈의 바다>라고 하는 그 설치 미술품은 다른 색조의 푸른색으로 칠해진 3,200명의 벌거벗은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터닉은 그 도시를 대표하는 곳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사진을 찍었다. 그들은 건물들 주변으로 밀려들고 솟아오르는 바닷물을 나타냈다.

모든 연령층의 사람이 미술품을 창작하는 것을 즐긴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색깔에 끌린다. 이것이 이 연령대에게 팔리는 책들이 총천연색 그림들로 그려지는 이유이다.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뭔가를 끄적거리고 표시하려 하는데, 항상 종이 위에만 그리는 게 아니다. 벽, 장난감, 가구,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까지도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인 화가 아키아나 크라마리크처럼 재능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녀는 여섯 살 때 기량이 뛰어난 성인 화가의 그림들 같은 믿기 어려운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열두 살 즈음에는 60개의 작품을 완성했으며, 그중 몇몇 개는 수천 달러에 팔렸다.

p.14~15



어떤 이들은 심지어 동물들도 미술 작품을 창작한다고 믿는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컷 새틴바우어 새들은 암컷들을 유혹하기 위해 파란색 물건들을 모아 '정자'라는 구조물들로 그것들을 늘어놓는다. 꽃, 유리 조각, 음료 빨대, 그리고 빨래집게들이 모두 그 새들이 정성 들여 지은 정자들에서 발견되었다. 미

국 세인트루이스 동물원의 사육사들은 자신들이 보살피는 몇몇 동물들이 물감으로 실험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뱀, 유인원, 펭귄, 그리고 심지어는 곤충들까지도 캔버스에 물감 자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들의 미술품들은 그 동물원이 펼치는 사업들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된다.

모든 문화의 사람들은 미술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역사에 대



해 알게 되는 중요한 방법이다. 동굴 그림들은 장장 4만 년 전인 선사시대 때부터 시작된다. 그것들은 대부분의 대륙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것들은 손가락이나 간단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동굴 벽에 그려졌다. 물감, 즉 안료는 흙과 돌맹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굴 벽화들은 빨간색, 검은색, 갈색, 또는 누르스름한 색이다. 2013년 영화 <크루즈 가족>에서는 한 원시인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동굴 벽에 그림들을 그린다. 아마도 그것들은 근처에 어떤 동물들이 살고, 어떻게 그것들을 잡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했을 것이다.

**p.16~17**



일부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문신의 형태로 자신들의 몸에 예술 작품을 만든다. 여러분은 재클린 윌슨의 어린이들을 위한 소설 <문신 투성이 엄마>에서 이렇게 했던 여인에 대해 읽을 수 있다. 종종 사람들은 그 모양새를 좋아해서 그것을 한다. 그러나 남태평양의 섬나라들과 같은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문신으로 새겨진 상징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들은 어떤 사람이 어느 집안이나 부족에 속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그것들은 종교적 혹은 영적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또 어떤 이유로 미술품을 창작할까? 어떤 사람들은 어느 다른 직업처럼 돈을 벌기 위해 그것을 한다. 사진이 존재하기 전, 화가들은 사람들이 어

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초상화를 그렸다. 1539년에 헨리 8세가 영국의 왕위에 있었을 때, 그는 화가 한스 홀바인을 독일로 보냈다. 홀바인의 임무는 클레베의 앤이라는 젊은 여성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헨리는 그녀와의 결혼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다. 이것이 헨리에게 그녀의 생김새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p.18~19**



홀바인은 호감이 가는 초상화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헨리는 그녀와 결혼하는 데 동의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앤을 봤을 때, 그는 그녀가 살찐 말처럼 생겼다고 말했다! 당연히, 홀바인은 두 번 다시 그 왕을 위해 그림을 그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 현대에는 사진작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 가족, 그리고 심지어 애완동물 사진까지 촬영한다. 일부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은 수백만 달러에 팔릴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작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유명해진다.

많은 사람이 그저 그것을 즐기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기 때문에 미술품을 창작한다. 그들은 기량과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다. 어쩌면 그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거나 그들의 상상 속에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기쁨, 노여움, 또는 슬픔 같은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



**p.20~21**

다른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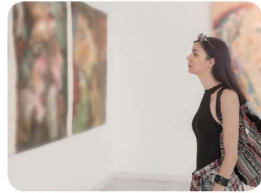
예술품을 창작하기도 한다. 그들은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거나,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어 한다. 예를 들면, 파블로 피카소의 유명한 그림 <게르니카>는 게르니카라는 스페인 마을이 폭격당한 후에 그려졌다. 그것



은 그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전쟁이 나쁜 것이란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

고 있다.

미술품은 그 미술품을 보는 사람들 역시 깊은 생각과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함께 모아 그들이 혼자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미술품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의 의사소통에 관한 것이다. 함께 나누고 싶은 어떤 감정이나 메시지를 가진 화가를 상상해 보자. 또한, 그 예술품을 보고 그 메시지를 전달받는 어떤 관람자를 마음속에 그려보자. 그 메시지는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다른 이에게로 전해질까? 그것이 전달되는 것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을까? 그 그림들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기로 하자.

## 2장. 그림 그리기 준비하기

p.24~25



화가들은 무엇을 그릴지 어떻게 결정할까? 화가들은 모든 종류의 다양한 장소에서 영감을 얻는다. 대다수 화가는 아이디어가 어디에서든, 그리고 그들이 거의 예상하지 못한 뜻밖

의 순간에 떠오를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어떤 화가들은 실제 대상을 그리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거나 인간이 만든 것일 수 있다. 이것은 '정물'화라고 불린다. 그 화가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무언가의 실제 모습을 포착하려 한다.

p.26~27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대중화되기 이전의 과거에는 꽃들과 과일이나 정물화의 인기 있는 선택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

기 있는 선택이다. 다른 화가들은 <버터 더미>라는 이 그림처럼 좀 더 특이한 대상들을 선택한다. 이것은 19세기에 프랑스 화가 앙투안느 발롱에 의해 그려졌다. 많은 화가들은 개개의 동물이나 식물을 그리기로 하든, 또는 풍경을 그리기로 하든, 자연에 영감을 받는다. 식물화가 마틴 J. 앨런은 아주 세밀한 식물화를 그린다. 그는 꽃봉오리가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영감을 받는다. 변화의 순간을 포착한다는 이러한 발상은 1987년에 전시되었던 모든 그림에 영감을 주었다.



어떤 화가들은 자신들의 꿈에 의해 영감을 받는다. 오딜롱 르동이라는 프랑스 화가는 자칭 '검은' 그림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렸는데, 그것들은 그의 꿈과 악몽에서 나왔던 형상들로 이루어졌다. 1878년에 그는 <물의 수호 정령>을 그렸고, 거기에는 바다 위를 맴도는 얼굴이 담겨 있다.



p.28~29

다른 화가들, 특히 추상적인 작품(명확한 모습이 없는 패턴, 모양, 선들)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냥 뭔가를 계속해 나가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어떤 느낌, 특별한 색을 사용하려는 욕구로부





터 시작하고, 이어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본다.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오는지에는 정말

이지 아무런 한계가 없다. 그렇지만 일단 그 화가가 강렬한 창작 욕구를 가지게 되면, 그 여정은 시작될 수 있다.

일단 화가가 어떤 형상을 창작하고 싶은지 결정했다면, 다음 결정은 표현 수단들의 선택이다. 화가는 어디에 소묘나 그림을 그릴지, 그리고 무엇으로 소묘나 그림을 그릴지를 선택해야 한다. 화가는 거의 모든 것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돌, 나무껍질, 나무, 도자기, 유리, 콘크리트, 가죽, 또는 심지어 사람 몸까지도 표현 수단들의 어떤 대체 선택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소재들 하나하나를 저마다 물감을 칠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또는 어려움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것들은 물감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색깔과 겉모습을 유지할 것인지에 영향을 준다. 화가는 완성된 작품이 어떻게 보일지, 또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지에 따라 그 표현 수단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어떤 화가는 사람들이 그림을 손으로 집어서 들고 있을 수 있도록 돌에 그림을 그리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돌이 느껴지는 방식이 그것이 보이는 방식만큼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



### p.30~31



대중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보도 위에 직접 그린 다. '트롱프뢰유'라는 독특한 유형의 벽화 또는 거리

벽화는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건물의 벽에 직접 그려지는 그림이다. 벽화는 빈민가로 변한 대도시 중심부 지역이나 삭막한 벽들에 활기를 주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일부 거리 화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만들어지자마자

예술이 있다. 이것은 '눈의 실수'라는 프랑스어이다. 이것은 착각이나 속임수를 만들어내는 예술품이다. 벽이나 보도에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보는 사람은 그 너미의 전혀 다른 무언가를 보는 것이다.

### p.32~33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피티 예술가 뱅크시에 의해 그려진다면 그래피티는 미술의 하나의 형식

이 될 수 있는데, 그는 영국 출신이지만 전 세계에서 작업하고 있다. 뱅크시의 정체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의 작품들은 잘 알려져 있다. 런던의 벽과 건물들에는 뱅크시의 예술품들이 많이 있다. 그것들 중 다수는 보호를 위해 퍼스펙스라는 투명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것들 중 일부는 페인트가 덧칠되거나, 그것들이 그려져 있는 벽이 제거된다. 그래피티 예술은 좀처럼 오랫동안 남아 있지 않지만, 소장을 위해 그 그림들의 사진이나 복사본을 구입할 수는 있다.

많은 화가들이 평평한 표면에 그림 그리기를 선택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감상을 위해 벽에 걸릴 수 있다. 과거에 화가들은 이를 위해 주로 나무를 사용했다. 1503년에 그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모나리자>는 포



플러 나무에 그려졌다. 현대 화가들은 보통 종이나 캔버스를 선택한다. 또한, 지금의 그 선택은 화가가 무엇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에 달려 있기도 하다. 물감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것들은 다른 유형의 표면을 필요로 한다.

### p.34~35

세 가지 주된 종류의 물감은 유화 물감, 수채화 물감, 아크릴 물감이다. 유화 물감은 튜브에 들어 있으며, 대개 캔버스 천으로 만들어진 표면에 칠해진다.

이것은 그림뿐만 아니라 돛과 텐트에 사용되는 질기고 촘촘하게 짜인 직물이다. 그것은 찢기가 어렵다. 수채화 물감은 종종 주석 통에 들어 있는 단단한 사각형 안료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튜브에 들어 있는 것으로 구입되어, 팔레트 위에 짜내서 굳어지게 될 수도 있다. 그것들은 보통 종이 위에 칠해진다. 그것들을 사용하려면 화가는 그림 붓에 약간의 물을 묻혀 단단한 물감의 표면을 적신다. 이렇게 하면 종이 위에 칠해졌을 때 강렬하고 밝은색이 된다. 물을 더 묻히면 물칠수록, 물감은 더 얇아지고, 그러면 화가는 옅은, 거의 투명한 '얇은 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



p.36~37



1800년대 초에 창작된 윌리엄 베리먼의 이 수채화는 그가 먼저 그림을 스케치하고 나서 수채화 물감으로 그것을 채워 넣기 시작한 방식을 보여준다. 이것은 자메이카에서 그려졌고, <자메이카 오두막>이라는 단순한 제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마무리되지 못했고, 따라서 완성되었다면 아마도 베리먼이 다른 제목을 붙였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그림이었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겠는가?

유화 물감과 수채화 물감 이외에, 현대 화가가 고를 수 있는 세 번째 선택인 아크릴 물감이 있다. 아크릴 물감은 20세기에 발명되었다. 그것은 여러 다양한 표면에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아크릴 물감은 더 얇게 만들기 위해 수채화 물



감처럼 물과 섞을 수 있고, 또는 질고 끈적끈적한 형태로 튜브에 들어 있는 것에서 곧바로 사용될 수도 있다. 아크릴 물감은 물을 이용해서 옷이나 피부에서 씻겨나가기 때문에 만약 그게 아직 젖은 상태라면 닦기가 쉽다. 만약 물감이 말랐다면 좀 더 어렵긴 하지만 매니큐어 제거제로 제거될 수 있다. 유화 물감은 제거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아크릴 물감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구 어지럽혀 놓는 사람들에게 좋다.

유화 물감과 아크릴 물감은 거칠 거칠한 질감을 가진 그림을 그리기에 좋다. 이것은 붓이나 팔레트 나이프라는 이름의 납작한 칼로 물감을 두껍게 찍어 바르면 된다. 이것은 1889년에 그려진 빈센트 반 고흐의 유화 <별이 빛나는 밤>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다. 물감의 거칠거칠한 질감은 마치 별들이 움직이고,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준다.

p.38~39



유화 물감과 아크릴 물감은 거칠 거칠한 질감을 가진 그림을 그리기에 좋다. 이것은 붓이나 팔레트 나이프라는 이름의 납작한 칼로 물감을 두껍게 찍어 바르면 된다.



이것은 1889년에 그려진 빈센트 반 고흐의 유화 <별이 빛나는 밤>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다. 물감의 거칠거칠한 질감은 마치 별들이 움직이고,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준다.



3장. 그림 그리기

p.42~43



일단 화가가 무엇을 그릴 것인지, 그리고 어떤 표현 도구들을 쓸 것인지 결정하면, 이젠 어디에서 그림 작업을 할지 결정할 시간이다. 풍경화를 그리고 싶은 화가는 밖으로 나가는 쪽을 택할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경치 앞에 앉거나 설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여러 날 동안에 걸쳐 변할 것 같지 않은 경관이라면, 그리고 날씨가 계속 알맞은 상태로 있다면, 화가는 전체 그림을 밖에서 완성할 수도 있다.

대개 그 사람은 먼저 연필 스케치를 하고, 정확한 색



조가 요구되는 곳에 섞어 둔 물감을 약간 칠할 수도 있다. 화가는 그 경치가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기 위해 사진들을 찍고 그 스케치에 메모를 써넣을 수도 있다. 그런 다음, 화가는



실제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 실내로 들어간다. 때때로, 어떤 화가는 전적으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 이것은 대상이 완전히 변함없는 상태로 유지된다는 사실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만약 어떤 화가가 사람이나 동물을 그리고 있다면, 사진을 모사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그 대상은 움직이거나, 불평하거나, 하루하루 외양을 바꾸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화가들은 원래 대상, 즉 실제 사람이나 동물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림이 그 대상의 외양뿐만 아니라 특성도 포착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 p.4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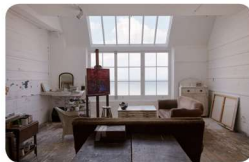
많은 화가들은 실내에서 그림 그리기를 택한다. 일부 화가들은 자기 집의 평범한 방을 사용한다. 이 려려면 신중한 생각이 요구되는데, 그냥 아무 방이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화가가 커다란 그림을 그릴 예정이라면, 그것은 이젤 위에 세워질 수도 있는데, 그건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치워야 할 많은 쓰레기가 있을 수 있고, 방에 온



통 스케치나 사진들이 핀으로 부착될 수도 있다. 그 화가는 이러한 것들을 매일 깔끔히 정리해야 하는 쪽보다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장소가 필요

하다.

그 방은 많은 자연광이 필요하고, 따라서 커다란 창문들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빛은 온종일 변한다. 아침에 따뜻한 햇볕을 많이 받는 방은 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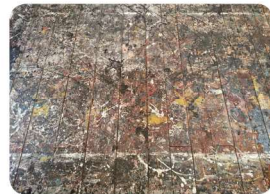
동안에는 좀 더 어둡고 침침할 수 있다. 빛의 변화는 대상의 색채 변화를 일으키고,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북반구에 있는 어떤 화가들은 북향의 방을 고른다. 그곳은 햇살을 덜 받지만, 그 빛은 온종일 거의 일정하다.

#### p.46~47

어떤 화가들은 오롯이 자신들의 예술을 위해서만 확보된, 작업실이라고 하는 방을 가질 만큼 운이 좋



다. 그들은 작업실로 들어가서는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생활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그림에 집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화가의 작업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작업실은 화가가 집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작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자신의 많은 작품이 보관되었던 아주 넓은 작업실을 가졌다. 또한 그는 모델과 방문객들도 접대했다.



어떤 화가들은 그림들이 크기 때문에 커다란 작업실이 필요하다. 1956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 화

가 잭슨 폴록은 바닥에 캔버스들을 놓고 그것들 위에 물감을 방울방울 떨어뜨리거나 끼얹어 거대한 그림들을 만들어냈다. 작업실은 그저 그림만을 위한 곳이 아닐 수도 있다. 만약 어떤 화가가 뭔가 작업을 하면서 여러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면, 거기에는 흔히 작은 주방, 소파, 또는 심지어 침대까지도 있다. 어떤 화가들은 작업실이 말끔해야만 작업할 수 있다. 그러나 또 어떤 화가들은 창작하기에 너무 바쁜 나머지 자기 주변의 난장판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 p.48~49

아일랜드의 더블린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1992년



에 세상을 떠난 아일랜드 태생 화가인 프랜시스 베이컨 소유의 작업실 모형관을 방문할 수 있다. 그 바닥은 물감의 주석 통들, 사진들, 신문에 서 오래된 기사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물체들로 뒤덮여 있다. 언젠가 프랜시스 베이컨은 너무 깔끔하게 정돈된 장소들에서는 작업할 수 없다는 말을 했었다. 그는 지저분한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단 화가가 시작할 준비가 되면, 어떤 색깔들을 사용할지 선택해야 한다. 물감 색깔은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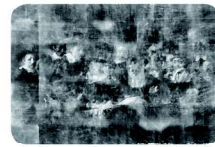
Prussian	ultramarine	sky	navy
indigo	cobalt	teal	ocean
peacock	azure	cerulean	lapis
spruce	stone	Aegean	berry
denim	admiral	sapphire	heron

이 유화 물감이든 수채화 물감 혹은 아크릴 물감이든, 재미난 이름들을 가진 많은 다양한 색조로 생산된다. 전문 화가가 소장하는 물감에는 단순히 '파란색'이 들어 있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울트라마린', '코발트 블루'와 '프러시안 블루' 같은 흥미진진한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물론, 화가는 물감들을 섞어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흰색을 추가하면 색깔이 더 열어질 것이다. 검은색을 아주 조금 추가하면 색이 더 어두워질 것이다. 원색인 빨강색, 파랑색, 그리고 노랑색을 다른 조합으로 섞으면, 자주색, 주황색, 그리고 초록색 색조가 나올 것이다. 몇몇 현대 미술 화가들은 오로지 한 가지 색깔에만 집중한다. 그들은 특별히 아름답거나 강렬한 그 색의 새로운 색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p.50~51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화가 개개인이 다르다. 어떤 화가들은 그림의 아주 작은 부분을 완벽하게 하려고 시간을 보낸다. 또 어떤 화가들은 전체 그림의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것의 부분들을 바꾼다. 그들은 색깔을 추가하거나 바꾸고, 실수를 바로잡는다. 어떤 사람들은 일단 그림이 다 끝나

면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술사가들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그 그림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림들에 '펜디멘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때쯤 이것은 전문가들에 의해 관찰될 수 있는데, 그들은 완성된 그림과 어울리지 않는 듯한 물감 흔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흔히, 원화의 이런 흔적들은 그 그림을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나 적외선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 p.52~53



이것의 좋은 예는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다. 그것은 1434년에 안 반 에이크가 그렸다. 그 초상화에 대한 과학적 검사로 안 반 에이크가 바꾼 부분들이 드러났다. 눈, 손, 그리고 발이 원래는 다른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변경은 대부분 그 그림이 단지 '밀그림'일 때 이루어졌다. 이것은 물감을 칠하기 전에 바꿨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몇몇 변경은 색을 입히는 바로 그 과정 동안에 행해졌다.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바꾸기가 더 쉽다. 화가는 아크릴 물감을 썼을 때, 원화의 물감을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그 부분에는 티탄백



물감을 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색깔을 덧칠할 수 있는 하얀 바탕이 생긴다. 유화 물감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정도로 쉽지 않다. 물감을 여러 겹 덧칠하면 그야말로 실수에 더 큰 관심을 끌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마르지 않은 유화 물감은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지울 수 있다. 마지막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서는 약간의 아민유를 추가할 수도



있다. 수채화 물감은 물에 용해되기 때문에 물을 더 추가하여 다시 적실 수 있다. 그런 다음, 흡수력 있는 종이 키친타월로 제거할 수 있다. 일단 물감을 칠한 표면이 다시 미르면, 화가는 새로운 물감으로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다.

#### 4장. 완성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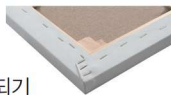
p.56~57



드디어 그림이 완성되었다! 이제는 그 그림이 더 멀리 여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업들을 가진 더 많은 사람

들이 필요해진다. 다음 단계는 대체로 액자에 넣는 일이다. 이 작업은 화가가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면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흔히 그림 액자 작업자가 한다. 완성된 그림을 액자에 넣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그림을 멋지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손상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그림은 액자에 넣어져 전시되지만, 몇몇 현대의 캔버스들은 액자 없이 전시되기도 한다. 이것은 그림의 측면들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종이나 판자에 그려진 그림들은 지탱을 위해 액자에 넣어진다. 캔버스에 그려진 많은 그림도 액자에 넣어진다. 캔버스는 먼저 캔버스 틀 막대라고 불리는 나무 막대기들 위로 팽팽히 당겨져야 하고, 그 그림은 막대의 측면에 고정된다. 종이는 캔버스보다 훨씬 더 손상되기 쉽다. 그것은 찢김이나 다른 손상을 막기 위해 대개 액자에 넣기 전에 일종의 판자에 부착된다.



p.58~59

보통, 그림은 특히 종이에 그려졌으면, 유리를 덮은 액자에 넣어진다. 유리는 공기 중의 먼지나 화학물질들로부터 그 그림을 보호하여 좋은 상태로 유지시킨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만지지 못하게

막는다. 그것은 또 그 그림에 도달하는 빛, 특히 자외선의 양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비록 그 그림을 보고 그것의 색채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빛은 그림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미술관이 조명을 희미하게 밝히는 것이다.

유화는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가 필요하지 않다. 대신, 그 그림 위에 투명한 니스를 한 겹 덧칠한다. 이 부분에서 화가는 매우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유화는 완성된 지 6개월 후이나 니스칠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감이 반드시 완전히 마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물감이 아주 두껍다면, 화가는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니스를 너무 일찍 덧칠하면, 물감이 마르기 전에 니스가 마르게 될 것이다. 얼마 후에 표면에 균열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그림은 값어치가 없어질 테고, 화가는 그것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간혹, 특별히 박물관과 미술관들에 있는 유화들은 우리가 덮인 액자에 넣어진다. 이것은 보통 일반인들에 의해 손상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그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p.60~61

다음 결정 사항은 사용할 액자의 종류이다. 어떤 액자들은 매우 가볍고 소박하다. 또 어떤 액자들은 아주 정교하며, 조각되거나 틀에 넣어져 화려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액자는 전통적으로는 나무로 만들어지지만, 현대에는 금속이나 특정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어떤 액자들은 '금박이 입혀지기도 한다. 이 말은 그것들이 마치 금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진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액자들에 금색 페인트를 칠하거나 금박을 입히면 가능할 수 있다. 금박은 고온 붓으로 조금씩 덧칠되는, 극도로 얇은 순금 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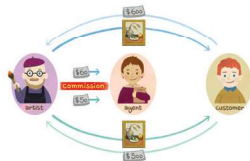


액자 작업이 완료되면, 그 그림은 전시되고 판매용으로 내놓을 채비가 갖춰진 것이다. 이 시점에서, 화가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그들은 화가의 그림 판매를 돕고, 가장 광범위한 관람객들에게 도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물론, 화가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팔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에는 더 많은 그림을 그리는 데 쓰일 수도 있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이런 이유로 많은 화가들은 중개인의 도움을 이용하는 쪽을 택한다. 미술 중개인은 화가들의 작품이 적절한 장소에 전시되고 적합한 사람들에게 팔리도록 화가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중개인은 대개 예술계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중개인은 구매자, 미술관, 그리고 경매 회사들(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나)과 많은 연줄이 있다.

p.62~63



중개인은 화가 가 버는 돈의 일부 비율을 취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이것은 '수수료'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불린다.

이 말은 화가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중개상도 더 많은 돈을 번다는 의미이다! 어떤 중개인들은 화가를 위하여 일하는 대신 미술관을 위해 일한다. 그들은 전시하고 판매할 적절한 예술품들을 찾아 돌아다닌다. 그들은 현재 전시할 준비가 된 작품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화가들을 접촉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많은 중개인들은 특정 양식의 미술품에 관한 전문가들이다. 그들은 새롭고 마음 설레게 하는 화가들을 찾기 위하여 전 세계를 자주 여행한다.

이미 꽤 유명하고 성공한 화가들은 아트 매니저의 도움을 이용할 수도 있다. 팝 스타 같은 많은 음악가들은 그들의 직업상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 매니저를 이용한다. 아트 매니저는 화가를 위해 비슷한 일을 한다. 그 매니저는 화가의 모든 업무를 돌본다.

금전 관리, 마케팅, 그리고 홍보 행사들이 매니저가 처리할 수 있는 몇몇 업무이다. 물론, 그림 그리는 일로 경력을 막 시작하고 있는 화가라면 중개인이 없을 수 있고, 매니저는 분명히 없을 것이다. 그 화가는 그림 보는 것을 즐기고, 심지어는 구입하고 싶어 할 만한 사람들 앞에 자기 그림들을 가져다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여는 것이다.

5장. 판매, 복원, 그리고 감상

p.66~67



미술관은 그림과 같은 예술품을 전시할 공간을 많이 가진 방이나 건물이다. 그것들은

관람자들이 와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심지어 허구의 첵보원 제임스 본드조차 미술관을 찾아간다! 2012년 영화 <007 스카이폴>에서 제임스 본드는 그의 상관 Q를 런던의 국립 미술관에서 만난다.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라는 유명한 그림을 훔치는 아주 불량한 여학생들에 관한 2007년 영화 <세인트 트리니안스>에도 같은 미술관이 등장한다. 이곳은 공립 미술관이며, 작품이 판매되지 않는 곳



이다. 좀 더 작은 미술관들은 특별 행사나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그곳에서는 특정 화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판매될 수도 있다. 대개, 전시회 첫날밤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다. 해당 화가는 그림들을 구입할 수도 있는 초대 손님들과 함께 참석한다. 보통 음식물이 제공되며, 재미난 사교 행사이다.

p.68~69



만약 어떤 화가가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한다면, 바라건대 사람들이 와서 작품을 구입할

것이다. 특히 가격이 높으면, 때때로 그들은 곧바로 작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그 화가는 카탈로그가 필요하다. 이것은 그림들의 사진과 가격에 대한 세부 정보가 실린 화려한 잡지 형태의 책자이다. 고객들은 이 카탈로그들을 가져가 시간을 두고 결정을 내린다. 일부 고객들은 단순히 어떤 그림을 보는 것이 좋고, 그것이 집에 걸려 있는 것이 보고 싶어서 구입하기를 원할 수 있다. 또 어떤 고객들은 미술품을 수집하고 그것을 투자로 보기 때문에 그림을 구입한다. 이 말은, 그들은 훗날에 훨씬 더 많은 돈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림만 구입한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고객들은 그 화가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는 일에 특히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들은 그 화가와 작품 양쪽에 모두 투자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림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화가는 웹사이트를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그들은 자신과 작품들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미술계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고객들이 어떤 그림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것은 미술 비평가의 일이다. 미술 비평가는 미술품을 살펴보고 그것이 얼마나 잘 그려졌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다. 비평가들은 모든 종류의 예술품에 대해 의견을 제공한다. 그들은 잡지, 신문, 전시회 카탈로그, 그리고 웹사이트에 미술품에 대한 글을 쓴다. 고객들은 비평가들이 쓴 견해를 읽는다. 그들은 무엇을 구입할지에 대한 결정을 돕는 데 그 견해를 이용한다.

p.70~71

미술 비평가들의 이색적인 업무가 2016년에 처음으로 행해졌는데, 그때 몇몇 비평가는 제1회 연례 로봇 미술 경연대회에서 출품작들을 심사했다. 전



세계의 팀들에게 개방된 이 경연대회는 로봇이 만들어낸 예술품들에 10만 달러 상당의 상을 제공한다! 로봇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사람이 리모컨을 이용하여 로봇팔을 조작할 수도 있고, 또는 로봇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조종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기법 중 하나는 로봇이 어떤 사진이나 그림을 베끼는 것이다. 그것은 한 번에 한 가지 색을 칠하며, 따라서 예를 들어 그림의 빨간 부분들이 전부 맨 먼저 칠해질 수 있다. 그다음에는 파란 부분들 전부, 노란 부분들, 그리고 등등. 이런 식으로, 그림이 시시히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림을 판매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미술품 '경매 회사'를 통해서이다. 경매 회사는 모든 종류의 물품을 판매한다. 미술관에서는 미술품의 가격이 정해져 있



다. 경매는 다르다. 그것은 사람들이 얼마를 지불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특이한 판매 유형이다. '경매사'라는 전문 판매자가 모인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여준다. 경매사는 사람들이 얼마를 제시, 또는 '부르고' 싶은지 묻는다. 그 그림의 구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손을 들거나 고개를 끄덕인다. 이것은 자신이 다른 구매자들과 경쟁하고 싶다는 뜻을 경매사에게 전해 준다.

p.72~73

매번, 호가는 높아지고 그림 가격도 올라간다. 가격이 더 높아질수록, 일부 경매 참가자들은 경쟁에서 떨어져 나간다. 경매사는 단 두세 명의 경매 참가자가 남을 때까지 계속 호가를 묻는다. 마침내, 그 그림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팔린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 경매 회사 두 곳은 크리스티와 소더비이다. 그들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미술품을 판매한다. 이 두 경매 회사들은 모두 런던과 뉴욕에 유명한 경매장을 갖고, 전 세계



적으로 영업을 펼치고 있다. 2010년, <누드, 녹색 잎과 상반신>이라는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한 점이 크리스티에 의해 매물로 나왔다. 그것은 8분 만에 1억 650만 달러라는 믿을 수 없는 액수에 팔렸다. 피카소는 이 그림을 단 하루에 그렸다. 그것은 하루 작업치고는 꽤 많은 급료이다! 피카소는 세상을 떠날 때 부유했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그 급료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을 것이다.



**p.74~75**

그러나 경매 회사는 신진 화가들이 일반적으로 그림을 판매하는 장소는 아니다. 경매 회사에서 팔리는 그림 중 상당수는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다. 이따금, 고객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투자로 소장 그림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 그런 다음, 돈을 벌기 위해 그 그림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매 회사에서 팔 수 있다. 에스라와 데이비드 나마드라는 두 남자는 세계에서 가장 값나가는 미술 소장품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가치가 약 30억 달러로 평가된다! 그들의 소장품은 스위스 제네바 공항 인근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것은 그들이 미술품을 감상하는 것이 좋아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며, 뉴욕의 크리스티에서 가장 빈번하게 미술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또 한 사람의 대단한 미술품 수집가는 일라이 브로드라는 미국의 억만장자인데, 8,000점의 예술품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이 작품들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를 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림들을 미술



관, 박물관, 대학교들에 대여하고 있다. 따라서, 미술품이 많은 다양한 이유로 창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다양한 이유로 구매되기도 하는 것이다. 화가들은 그토록 열심히 작업한 그림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보관되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세상에 나오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까? 그것은 알기가 어려운데, 최고가로 팔리는 그림들 중 상당수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화가들 작품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그것들 가운데 많은 작품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공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p.76~77**



공공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어떤 그림들은 수 세기가 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예술계의 몇몇 더 중요한 사람들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이 사람들은 큐레이터와 보존 처리 전문가들이다. 미술 큐레이터의 업무는 일반 전시를

위해 미술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관리하는 일이다. 주요 공공 미술관의 큐레이터는 어떤 그림을 구입할지 결정한다. 또한 그 사람은 벽에 어떤 것들을 걸지, 어떤 것을 당분간 주의하여 보관할지, 그리고 어떤 것을 다른 미술관들에 대여할지도 결정한다. 큐레이터의 업무에는 그 그림들에 대해 세심한 기록을 계속하는 일도 포함된다. 또한, 그 업무에는 라벨 제작, 서면 정보와 카탈로그에 게재된 그림들의 소개 글 작성도 포함된다.

1997년에 나온 코미디 영화 <빈>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랭글리이다. 데이비드는 빈 씨가 런던의 국립 미술관에서 파견한 유명한 미술 비평가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빈을 자기 집에서 머물도록 초대한다. 그러나 국립 미술



관에서는 그를 쫓아내기 위해 경비원인 빈 씨를 파견했을 뿐이었다. 빈 씨가 유명하고 값나가는 그림 〈휘슬러의 어머니〉를 뜻하지 않게 손상시키자 데이비드는 겁에 질린다. 그는 그 그림들을 제대로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큐레이터가 된다는 것은 책임이 막중한 일인 것이다!

**p.78~79**



미술 작품 보존 처리 전문가의 일은 좀 더 기술적이다. 첫째, 그들은 미술품을 보존한

다. 이 말은, 그들이 미술품을 피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그들은 그것을 가능한 한 본래 상태에 가깝도록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그들은 손상된 예술품을 보수하기도 한다. 그것들은 본래 상태로 복원, 즉 되살아나게 된다. 손상은 그동안의 세월, 또는 수분이나 빛 같은 환경 문제들에 의해 가해졌을 수 있다. 간혹, 어떤 그림의 복원이 실제로 더 많은 손상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비록 복원이 조심스럽게 행해지더라도, 사람들은 그 결과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술품 복원은 오직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사라고사라는 스페인의 작은 도시에는 벽화인 프레스코가 그려진 교회가 있다. 그 프레스코화는 예수의 그림이고, 수백 년이 된 것이다. 그 마을에 살던 여든 살 노파가 예수의 얼굴에 하얀 부분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직접 그것을 고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래된 예수 얼굴 위에 새로운 얼굴을 그렸다. 안타깝게도, 새 얼굴은 전혀 판판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인기 높은 관광 명소이다.



**p.80~81**

어떤 그림이 제대로 복원될 때, 거기에는 흔히 많은 과학이 연관된다. 레이저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은 표면층을 뜨겁게 만들어 팽창시킨다. 이렇게 하면, 표면에서 먼지를 들어 올리는 압력파가 생긴다. 레이저 광선은 짧은 시간, 대개 1초 이하로만 사용되지만, 매우 강력하다. 일부 미술품 복원가들은 그림을 닦기 위해 박테리아를 이용한다. 특정 박테리아는 효소라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 그 효소는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고 먼지를 분해하여 그림 표면에서 들어 올린다.



이제 그림의 여행은 막을 내린다. 그것은 그려지고, 액자에 넣어지고, 팔리고,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감상할 수 있다. 어떤 그림들을 감상하기 위해 미술관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직접 그림을 하나 그리고 액자에 넣어보는 건 어떨까? 다음에 어떤 그림을 볼 때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연관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 작품을 즐기면서 바라보라. 그 화가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추측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라. 그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도달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해 온 것이다!